

## 都市地域住民의 營養劑 服用 實態와 이에 影響을 미치는 要因

崔 鍾 生 · 卞 廷 煥 · 南 喆 鉉  
(慶山大學校 保健大學院)

### 목 차

I. 서 론	IV. 요약 및 결론
II. 조사방법	참고문헌
III. 조사결과 및 고찰	

### I. 緒 論

의약품은 인간의 질병으로 인한 고통을 덜어주며 수 많은 질병의 예방, 진단, 치료 등 건강유지에 사용될 뿐만 아니라 보다 나은 건강증진을 위한 생산재로서도 사용되고 있다. 현재 모든 국가에서 국민건강 확보를 위하여 적용하고 있는 일차보건의료의 8가지 필수사업 내용에도 필수 의약품의 공급이 포함되어 있다.<sup>1)</sup> 약은 근대에 이르러 제약기술의 발전과 보건의료기술의 발달로 괄목할만한 발전을 이루어 질병의 예방과 치료에 크게 기여하여 인간의 평균수명을 연장시키고 있다.<sup>2)</sup> 우리나라 국민의 평균수명의 경우도 1980<sup>3)</sup>년의 평균수명 65.9세(남 62.7 여 69.1)에서 1989<sup>4)</sup>년에는 70.4세(남 67.1 여 73.6세)로 늘어나는 놀랄만한 결과를 나타내고 있으며 일본국민의 평균수명은<sup>5)</sup> 78.4세로서 세계에서 가장 오래사는 국민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질병치료를 목적으로 사용하는 대부분의 의약품은 정도는 다르나 약간의 부작용을 수반하고 있어 어느 경우이나 효과적이고 언제나 안전하다고 할 수가 없다.<sup>6)7)</sup> 따라서 의약품개발에 종사하는 의사, 약사 등 의약을 다루는 전문가들은 효과가 좋고

부작용이 전혀없는 의약품을 개발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이러한 약품의 선택 투여에 고심하고 있는 것이다. <sup>8)</sup> 더구나 우리생활 주변에 지나치게 약에 대한 광고와 홍보물이 쏟아져 나와 전문인인 의사나 약사와의 상의 없이 자가진단에 따른 무분별한 약의 선택 습관으로 약을 잘못 복용하여 약화사고나 약물중독이 일어나는 경우도 적지 않아<sup>9)10)</sup> 사회문제화 되고 있다. 의약품은 대부분 화학물질이며 생물화학적 활성을 지니고 있어 약효성과 안전성이 중요시되어야 함에도 그렇지 못한 경우도 많아서 매년 제품검사의 불합격율이 1.6%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들이 약화사고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아직 약화사고에 대한 통계가 없으며 미국의 통계에 의하면 종합병원, 병의원 및 약국에서의 약화사고는 13~15%가 발생하는 것으로 보고된 바 있으며, 일본의 砂原의 통계에 의하면 抗腫瘍劑(72.3%) 化學療法劑(25.8%) 호르몬劑(26.1%) 營養劑(25.8%) 泌尿生殖器治療劑(22.8%) 등의 순으로 많이 발생한다고<sup>7)</sup> 되어 있어 영양제에 의한 약화사고가 의외로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약화사고는 의약품을 오용(misuse) 또는 남용(abuse)했을 때 주로 일어나는데, 오용은 잘못된 사용 즉 의사나 약사의 지시대로 사용하지 않았거나 용법대로 사용하지 않은 것을 말하

는데 오용은 비록 잘못된 사용이긴 하지만 의학적인 목적을 갖고 있어 질병예방이나 치료 또는 건강증진의 목적으로 사용했다는 것이며, 남용은 의학적인 목적이 없이 비의학적인 사용을 말하는데<sup>7)9)</sup>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는 이러한 의약품의 오남용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더구나 1980년대의 급속한 경제성장으로 국민의 건강에 대한 욕구가 높아져 상대적으로 의약품의 사용빈도와 그 양도 많은 증가를 가져왔으며, 특히 건강식품과 더불어 건강약품(영양제 즉 자양강장제 또는 비타민제)을 복용하는 사람이 늘어나고 있어 이들 약품의 오남용에 대한 문제가 없을 수 없으므로 이에 대한 올바른 지식이 필요하다.

그러나 이러한 營養劑 복용에 대한 실태와 국민들의 의식구조가 파악되지 않았고, 이에 대한 연구도 미흡한 실정이어서 국민들의 營養劑 복용에 대한 올바른 지식과 태도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자료는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바탕 위에서, 오남용이 없이 유효하고 안전한 營養劑를 선택 복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적인 방향설정과 그 대책을 세우는데,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본 논문을 작성하였다.

## II. 조사방법

### 1. 조사대상 및 자료수집

본 연구에서는 영양제 또는 자양강장제 등을 자주 접할 수 있는 10대 후반 이상 연령층을 대상으로 1990년 1월 4일부터 24일 까지 20일간 조사원 또는 대학생을 훈련시켜 대상자와 직접 면접케 하여 조사하였는데 대도시 417명, 중도시 423명, 소도시 366명 등 총 1,206명이 조사대상이 되었다.

### 2. 자료 및 분석

조사완료된 조사표중 잘못 기재되었거나 불실한 조사표를 제외하고 정리된 자료를 SPSS(Statistical Package for the Social Sciences)에<sup>11)</sup> 의하여 전산처리 하였으며 영양제 복용 및 효과에 어떤 변수가 얼마의 영향을 미치는가를 알아보기 위하여 단계적 다중회귀분석(Stepwise multiple regression)을 이용하였다.

## III. 조사결과 및 고찰

### 1. 조사대상자의 일반특성

#### 1) 지역별 및 성별

조사응답자는 총 1,206명중 남자 55.5%, 여자 44.5%로 남자가 여자보다 약간 많았다. 지역별 및 성별대상자를 보면 대도시는 남자 55.4%, 여자 44.6%, 중도시는 남자 53.2%, 여자 46.8%, 소도시는 남자 58.2%, 여자 41.8%로 소도시에서 남자 비율이 가장 높았다(Table 1-1).

#### 2) 연령 및 학력별

연령별 대상자는 20~29세군이 41.3%로 가장 많았으며 40~49세군이 24.9%로 다음이었고, 50~59세군이 18.4%였으며 30~39세군이 14.2%로 젊은층이 많았다.

학력별 대상자는 대학수준 학력자가 48.8%로 가장 많았고 고등학교 학력자가 30.1%, 중학교 학력자는 11.7%였으며 대학원 학력자도 4.2%로 나타나 대상자의 교육수준은 높은 수준이었는데 이는 조사지역이 도시지역이기 때문인 것 같다.

#### 3) 출생지역별

조사대상자의 출생지역은 직할시 이상 대도시 지역 출신이 29.6%로 가장 많았으며, 농어촌지역 28.4%, 읍·면사무소지역 22.1%, 중소도시지역 19.9%로 나타났다.

#### 4) 직업별

학생이 전조사대상자의 27.4%로 가장 많았으며, 무직이 15.8%, 판매 서어비스업이 15.1%, 전문기술직이 9.0%였고 행정사무직이 6.8% 그리고 교직원이 6.0%였다(Table 1-2).

#### 5) 종교별 및 결혼상태별

무종교가 전체의 37.3%로 가장 높았고 불교 32.6%, 기독교 16.7%, 천주교 12.4%로 나타났다. 대도시인 서울은 무종교가 41.0%, 소도시지역인 포항은 불교가 39.3%로 가장 높았다.

결혼상태를 보면 기혼자가 59.2%로 과반수를 넘었으며, 미혼은 38.6%였고 결혼한 경력은 있으나 혼사는 사람은 2.2%였다.

#### 6) 경제상태별

경제상태는 응답자 자신의 견해에 의하여 상류층, 중류층, 하류층으로 구분하였는데 중류층이 61.7%로 가장 많고, 하류층이 23.9%, 상류층이 14.4%였고 상류층은 소도시에서 16.4%, 하류층은 대도시지역에서

Table 1-1. Percentage Distribution of Subjects by Demographic Variables

(Unit : %)

Classification	Seoul	Taegu	Pohang	Total(No.)
Total	417(34.6%)	423(35.1%)	366(30.3%)	100.0(1206)
<u>Sex</u>				
Male	55.4	53.2	58.2	55.5(669)
Female	44.6	46.8	41.8	44.5(537)
<u>Age</u>				
20~29	41.7	35.5	47.5	41.3(498)
30~39	16.5	14.9	10.7	14.2(171)
40~49	28.1	27.0	18.9	24.9(300)
50~59	12.2	22.0	21.3	18.4(222)
Over 60	1.4	0.6	1.6	1.2( 15)
<u>Educational Level</u>				
No Schooling	—	0.6	—	0.2( 3)
Primary School	3.6	7.8	3.3	5.0( 60)
Middle School	8.6	17.0	9.0	11.7(141)
High School	38.8	27.7	23.0	30.1(363)
College	43.9	42.6	61.5	48.8(588)
More than College	5.0	4.3	3.3	4.2( 51)
<u>Birth Place</u>				
Large City	31.7	24.1	33.6	29.6(357)
Small & Middle City	14.4	23.4	22.1	19.9(240)
Eup Area	25.2	22.0	18.9	22.1(269)
Rural area	28.8	30.5	25.4	28.4(342)

Table 1-2. Percentage Distribution of Subjects by Socio-Economic Variables

(Unit : %)

Classification	Seoul	Taegu	Pohang	Total(No.)
Total	417(34.6%)	423(36.1%)	366(30.3%)	(100%)1206
<u>Occupation</u>				
Professional	12.2	8.8	5.7	9.0(108)
Farmer & Fishery	2.4	7.3	3.3	4.5( 54)
Worker in factory	4.3	2.2	0.8	2.5( 30)
School staff	3.6	8.0	6.6	6.0( 72)
Admin. clerk	7.2	7.3	5.7	6.8( 81)
Sales & Services	21.6	10.9	12.3	15.1(180)
Labours	1.4	3.6	0.8	2.0( 24)
Student	25.2	23.4	34.4	27.4(327)
Unemployed	11.5	16.1	20.5	15.8(189)
Others	10.1	12.4	9.8	10.9(141)
			34.4	
			39.3	

(Unit : %)

Classification	Seoul	Taegu	Pohang	Total(No.)
Total	417(34.6%)	423(36.1%)	366(30.3%)	(100%)1206
<b>Religion</b>				
None	41.0	36.2	34.4	37.3(450)
Buddism	25.9	36.2	39.3	33.6(405)
Christian	22.3	14.9	12.3	16.7(201)
Catholic	10.8	12.8	13.9	12.4(150)
<b>Income Level</b>				
Uppcr	-	0.7	3.3	1.2( 15)
Middle Upper	12.9	13.5	13.1	13.2(159)
Middle	56.1	63.8	65.6	61.7(744)
Middle Low	20.1	18.4	13.1	17.4(210)
Low	10.8	3.5	4.9	6.5( 78)
<b>Marital Status</b>				
Unmarried	38.8	36.9	40.2	38.6(465)
Married	59.7	59.6	58.2	59.2(714)
Single(Married career)	1.4	3.5	1.6	2.2( 27)

30.9%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Table 1-2).

## 2. 營養劑 복용경험

본 논문에서 영양제라 함은 일반대중이 질병의 치료제로서가 아니라 건강의 유지 및 증진을 위하여 복용하는 비타민제, 자양강장제, 환약을 포함한 한약, 로얄제리를 포함한 건강식품등 일반적으로 약국에서 구입할 수 있는 약제를 총칭하였다.

營養劑를 한두번이 아니고 2주이상 계속 복용한 경험률은 Table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72.0%를 나타내어 도시 주민의 2/3 정도는 영양제를 복용한 경험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영양제의 종류별 경험률은 비타민류가 34.7%로 가장 높으며, 다음은 한약제가 함유된 환제가 24.5%, 강장강정제가 7.5%, 로얄제리가 5.3%의 순이었다. 1984년 보고서에<sup>12)</sup> 의하면 營養劑 복용율 41.8%와 비교하여 괄목할 만큼 많은 증가를 가져 왔다.

성별로는 남자의 營養劑 복용경험율이 74.6%로서 여자의 68.5% 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는 건강해 질려는 욕망이 남자가 여자보다 높거나 가정에서 경제활동을 하는 남성의 건강이 여자보다 우선되기 때문이거나 남성우위의 사회적 구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연령별 복용경험율은 60대에서는 100.0%로 營養劑를 먹어보지 않은 사람이 없으며 50대 76.4%, 40대 75.0%,

30대 47.4%로 연령이 높을수록 경험율도 높았다. 19세 미만의 복용경험율 63.2%와 20대의 경험율 73.9%는 30대 보다도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현재 30대 사람들이 10~20년전인 과거 10대 또는 20대에 겪었던 생활환경 속에서 가졌던 건강의식이나 소득수준 등이 현재보다 못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되며 현재의 생활수준과 보건의식 수준이 과거보다 높기 때문에 건강에 대한 욕망이 크고 대학입시등 육체적 및 정신적 소모에 대비하여 영양제 복용이 늘었기 때문이 아닌가도 생각한다.

연령별로 영양제 종류별 복용율을 보면 비타민 복용율은 19세 미만에서 57.9%로 가장 높으며, 20대 39.9%, 30대 35.2%의 순으로 나타나 대학입시를 앞둔 고등학교 학생들의 영양제 복용율이 높음을 알 수 있었다. 강장강정제 복용 경험율은 40대 14.8%, 50대 11.1%, 60대 100.0%로 연령층이 높은 40대 이후에서 많이 선호하고 있어 이해가 되었으나 강장강정제를 복용하지 않아도 될 연령층이 낮은 10대의 경험율이 5.3%나 되어 약이 남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한약 환제 복용경험율은 연령이 높은 60대, 50대와 40대에서 각각 75.0%, 27.8%, 27.3%로 젊은층 보다 월등히 높게 나타났다. 로얄제리 복용경험율도 연령이 높은 층인 50대 6.9%, 40대 6.8%로 젊은층 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는 나이가 들면 건강의 쇠퇴와 정력감소의 두려움 때문에 이에 대비할

Table 2. 營養劑 종류별 복용경험(2주이상 계속 복용)

	비타민류	강장강정제	로알제리	한약재로 만든 환약	경험무	경험유	계(%)
	34.7	7.5	5.3	24.5	28.0	72.0	100.0(1125)
<b>성 별</b>							
남	33.8	7.0	5.6	28.2	25.4	74.6	100.0(639)
여	35.2	8.0	4.9	19.8	31.5	68.5	100.0(486)
		$\chi^2 : 12.59$	$DF : 16$		$Sig. : 0.013$		
<b>연 령</b>							
~19	57.9	5.3	—	—	36.8	63.2	100.0( 57)
20~29	39.9	2.2	5.1	26.8	26.1	73.9	100.0(414)
30~39	35.2	3.7	3.7	14.8	42.6	57.4	100.0(162)
40~49	26.1	14.8	6.8	27.3	25.0	75.0	100.0(264)
50~59	30.6	11.1	6.9	27.8	23.6	100.0	100.0(296)
60~		25.0		75.0			100.0(120)
		$\chi^2 : 131.60$	$DF : 16$		$Sig. : .000$		
<b>경제상태</b>							
상	—	20.0	—	60.0	20.0		100.0( 15)
중상	43.8	6.3	12.5	16.7	20.8		100.0(144)
중	33.0	8.2	4.7	27.0	27.0		100.0(699)
중하	34.4	3.1	—	23.4	39.1		100.0(192)
하	40.0	12.0	12.0	12.0	24.0		100.0( 75)
		$\chi^2 : 82.26350$	$DF : 16$		$Sig. : .000$		
<b>직업별</b>							
전문기술직	18.8	18.8	50.3	6.3	100.0		
농·축임수산업	—	28.0	57.1	14.3	100.0		
생산직	—	—	50.0	50.0	100.0		
교직원	—	25.0	75.0	—	100.0		
행정사무직	31.3	12.5	50.0	6.3	100.0		
판매서비스업	25.8	16.1	35.5	22.6	100.0		
단순노무자	—	33.3	33.3	33.3	100.0		
학 생	11.1	24.4	46.7	17.8	100.0		
무 직	12.5	15.6	53.1	18.8	100.0		
기 타	32.0	44.0	16.0	8.0	100.0		
		$\chi^2 : 118.45322$	$DF : 27$		$Sig. : .0000$		
<b>지 역</b>							
대도시	21.4	23.2	33.9	21.4	100.0		
중소도시	20.4	16.3	44.9	18.4	100.0		
읍면사무소지역	15.4	23.1	51.3	10.3	100.0		
농어촌지역	10.6	27.1	53.2	8.5	100.0		
		$\chi^2 : 28.65844$	$DF : 9$		$Sig. : 0.0007$		
<b>종 교</b>							
없 음	18.8	23.4	37.5	20.3	100.0		
불 교	15.7	25.7	48.6	10.0	100.0		
기독교	24.2	15.2	45.5	15.2	100.0		
천주교	7.4	18.5	55.6	18.5	100.0		
		$\chi^2 : 24.4178$			$Sig. : 0.0037$		

러는 의욕이 강해 짐으로 이러한 결과는 당연한 결과라고 하겠다. 그러나 젊은층에서 강장강정제, 로얄제리, 환약, 영양제 등 복용경험율이 적지 않다는 것은 약물에 대한 정확한 정보와 이해없이 단순한 추측이나 관측에 의한 홍보물에 의거 복용하지 않아도 될 영양제를 과용 또는 남용하고 있다고 보아 이에 홍보 교육이 중요하다 하겠다. 경제상태별 영양제 복용율은 상 및 중상류층은 각각 80.0%와 79.2%로 나타나 대부분 복용경험이 있었으며 중하 및 하류층도 60.9%와 76.0%로 낮은 편도 아니었다. 이를 보면 도시주민의 경우 하류층이라고 자인하는 사람들도 건강을 위한 영양제 복용에 관심이 많음을 알 수 있었다. 상류층은 비타민보다 강장강정제와 환약을 즐겨 복용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중상·중·

중하 및 하류층에서는 비타민류 복용율이 각각 43.8%, 33.0%, 34.4%, 40.0%였으며 환약복용율은 중류와 중하류층에서 27.0%와 23.4%로 다른층 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렇게 영양제 복용 경험율이 주민들의 경제적인 여건과 관련하여 큰 차이를 보이지 않은 것은 소득수준의 향상을 감안 하더라도 건강의 유지와 증진에 대한 국민들의 욕구가 점차 높아지고 있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즉 적극적인 건강(Positive Health)을 추구할려는<sup>13)</sup> 현대국민들의 의식이 크게 작용하고 있다고 보겠다.

### 3. 營養劑 복용결과 효과에 대한 의견

營養劑를 복용한 후 그 효과가 있다고 응답을 한 사

Table 3. 營養劑 복용후 결과에 대한 의견

	모르겠다 9.9	효과가 적다 22.5	그저 그렇다 45.0	효과가 많다 15.2	계(%) 100.0
<b>성 별</b>					
남	16.8	19.6	45.8	17.8	100.0
여	17.2	25.3	44.8	12.6	100.0
	$\chi^2 : 4.55994$		DF : 3	Sig. : .2070	
<b>연 령</b>					
~19	0.0	50.0	33.3	16.7	100.0
20~29	14.7	20.6	47.1	17.6	100.0
30~39	23.1	15.4	50.0	11.5	100.0
40~49	20.0	24.0	44.0	12.0	100.0
50~59	15.0	25.0	40.0	20.0	100.0
60~69	25.0	-	75.0	-	100.0
	$\chi^2 : 28.62976$		DF : 15	Sig. : 0.0000	
<b>경제상태</b>					
상	-	33.3	66.7	-	100.0
중상	14.3	3.6	53.6	28.6	100.0
중	18.8	25.0	45.3	10.9	100.0
중하	15.4	30.8	42.3	11.5	100.0
하	11.1	11.1	22.2	55.6	100.0
	$\chi^2 : 28.62976$		DF : 15	Sig. : 0.0179	
<b>학 력</b>					
무 학	-	50.0	33.3	16.7	100.0
국민학교	14.7	20.6	47.1	17.6	100.0
중 학 교	23.1	15.4	50.0	11.5	100.0
고등학교	20.0	24.0	44.0	12.0	100.0
대 학 교	15.0	25.0	40.0	20.0	100.0
대 학 원	25.0	-	75.0	-	100.0

람은 60.2%로 상당한 비율의 사람은 영양제 복용에 대하여 긍정적인 반응을 나타냈으며 효과가 적다가 22.5%로서 효과가 많다는 15.2%보다 약간 높았다(Table 3). 성별로 보면 “효과가 많다”는 남자가 17.8%로 여자의 12.6%보다 많았으며 이를 포함한 긍정적인 평가는 남자가 63.6%로 여자의 57.4%보다 많았고, 효과가 적다는 경우는 여자가 25.3%로 남자 19.6%보다 높게 나타났다.

학력별로 보면 효과가 많다는 울이 대학교 학력자에서 20.0%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효과가 적다는 사람은 무학자가 50.0%로 반수를 차지하였다. 효과가 많다는 울을 포함하여 영양제 복용후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울은, 대학원 학력자가 75.0%로 가장 높고, 국민학교 학력자가 64.7%로 다음이었으며, 중학교 학력자 61.5%, 대학교 학력자 60.0%, 고등학교 학력자 56.0%의 순으로 나타나 교육정도별로 영양제 복용후 효과 의견에는 큰 차이가 없음을 알 수 있었다. 직업별로 보면 “효과가 많다”는 생산직에서 20.0%로 가장 높았고 판매서비스업 16.7%, 행정사무직 14.8%, 단순노무자 12.5%로 나타났으며 이를 포함하여 효과에 긍정적인 평가를 한 경우는 역시 생산직에서 70.0%로 가장 높았고, 다음은 교직원과 행정사무직이 공히 66.7%였으며, 학생 55.0%, 전문기술직 52.8%, 판매서비스업과 단순노무자가 공히 50.0%로 나타났다. 이는 어느 정도 육체노동이 필요한 생산직 종사자와 정신 및 육체적 피로가 많은 교직원과 행정사무직에서 타직종보다 월등히 영양제의 효과를 인정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지역별로 보면 효과가 많다고 한 응답자는 소도시에서 18.0%로 대도시와 중도시의 15.1%와 13.8%보다 약간 높았으며 효과가 적다고 한 응답자는 중도시에서 31.3%로 타도시의 19.7%와 11.3%보다 높게 나타났다.

출생지역별로 보면 효과가 많다는 대도시에서 21.4%로 가장 높고 중도시에서 18.4%, 읍·면사무소지역 10.3%, 농어촌지역 8.5%로 큰 도시지역 출신일수록 영양제의 효과를 많이 본 것으로 나타났다.

종교별로는 효과가 크다고 한 울은 종교를 갖지 않는 자에서 20.3%로 가장 높고 천주교 신자가 18.5%로 다음이며 기독교 15.2%, 불교 10.0%의 순이었다. 효과가 크다고 한 울을 포함하여 효과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경우는 천주교 신자가 74.1%에서 가장 높고 기독교

신자가 60.7%로 다음이었으며 불교가 50.6%로 나타났다.

#### 4. 營養劑 효과에 대한 일반적인 인식

Table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일반적으로 도시주민들의 영양제 효과에 대한 인식은 “효과가 있을 것이다”라고 긍정적인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이 53.5%로 과반수가 넘었으며 “효과가 적다”고 생각하고 있는 경우는 15.4%로 실제로 영양제를 복용한 결과 Table 3의 긍정적인 생각 60.2%보다 낮고 효과가 적다는 22.5% 보다 낮았다. 이는 영양제 효과에 대한 인식이 복용전 보다 복용후 좋게 나타나고 있어 영양제의 약효는 인정된다고 볼 수 있다. 모르겠다가 31.1%로 응답자의 약 1/3이 효과에 대하여 큰 관심이 없음을 알 수 있었다. 성별로는 영양제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는 남자가 56.5%로 여자의 49.7%보다 높았으며 모르겠다는 여자가 35.8%로 남자의 27.4%보다 높았다. 이는 Table 3에서 나타난 복용후 효과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한 남자 63.8%와 여자 57.4%보다 상당히 낮게 나타났다. 연령별로 보면 효과가 많을 것으로 생각하는 경우는 60대에서 20.0%로 가장 높고 30대 19.3%, 20대 14.3%의 순이었으며 10대에서 40대까지 전 연령층의 과반수 넘는 응답자는 영양제 효과에 대하여 긍정적인 인식을 하고 있었다. 20대와 50대에서 각각 20.4%와 20.3%로서 효과가 적을 것이라고 부정적인 의견을 나타내었다.

경제상태별로 보면 중류층에서 62.3%로, 중하류층 57.1%보다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효과가 적다는 상류층에서는 40.0%, 하류층에서는 15.4%로 나타났으며 중류층에서는 18.1%가 효과가 적을 것이라고 하였다.

학력별로 보면 효과가 없을 것이라는 의견을 가진 사람은 전문기술직에서 19.4%로 가장 높으며 학생 19.3%, 판매서비스업 18.3%로 나타났으며 효과가 많을 것이라는 인식은 생산직에서 20.2%로 가장 높았고, 판매서비스업에서 16.7%로 다음이었고 행정사무직이 14.8%로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응답을 한 경우는 생산직에서 가장 많았고 행정사무직(66.7%)과 교직원(66.7%) 판매서비스업이 50.0%로 과반수가 넘었다.

출생지역별로 보면 대도시지역 출신에서 영양제의 효과가 클 것으로 생각하는 울이 15.1%로 가장 높고,

Table 4. 營養劑 효과에 대한 일반적인 인식

	모르겠다 31.1	효과가 적다 15.4	그저 그렇다 41.3	효과가 많다 12.2	계 100.0(1206)
<b>성 별</b>					
남	27.4	16.1	43.5	13.0	100.0(669)
여	35.8	14.5	38.5	11.2	100.0(537)
	$\chi^2 : 9.85284$		DF : 3	Sig. : .0199	
<b>연 령</b>					
~19	31.6	10.5	47.4	10.5	100.0( 57)
20~29	23.8	20.4	41.5	14.3	100.0(441)
30~39	36.8	10.5	33.3	19.3	100.0(171)
40~49	33.0	9.0	50.0	8.0	100.0(300)
50~59	36.5	20.3	35.1	8.1	100.0(222)
60~69	60.0		20.0	20.0	100.0( 15)
	$\chi^2 : 69.41948$			Sig. : .0000	
<b>경제상태</b>					
상	20.0	40.0	40.0		100.0( 15)
중상	30.2	7.5	41.5	20.8	100.0(159)
중	31.5	18.1	43.1	7.3	100.0(744)
중하	32.9	10.0	40.0	17.1	100.0(210)
하	26.9	15.4	26.9	30.8	100.0( 78)
	$\chi^2 : 78.33241$		DF : 12	Sig. : 0.0000	
<b>학 력</b>					
무 학	31.6	10.5	47.4	10.5	100.0( 57)
국민학교	23.8	20.4	41.5	14.3	100.0(441)
중졸 또는 중퇴	36.8	10.5	33.3	19.3	100.0(171)
고등학교	33.0	9.0	50.0	8.0	100.0(300)
대 학 교	36.5	20.3	35.1	8.1	100.0(222)
대 학 원	60.0	0.0	20.0	20.0	100.0( 15)
	$\chi^2 : 69.41948$		DF : 15	Sig. : .0000	
<b>직 업 별</b>					
전문기술직	27.8	19.4	38.9	13.9	100.0(108)
농·축임수산업	38.9	16.7	33.3	11.1	100.0( 54)
생 산 직	30.0	-	50.0	20.0	100.0( 30)
교 직 원	29.2	4.2	66.7	-	100.0( 72)
행정사무직	22.2	11.1	51.9	14.8	100.0( 81)
판매서비스업	31.7	18.3	33.3	16.7	100.0(180)
단순노무자	37.5	12.5	37.5	12.5	100.0( 24)
학 생	25.7	19.3	43.1	11.9	100.0(327)
부 직	44.4	11.1	38.1	.6.3	100.0(189)
기 타	30.2	18.6	34.9	16.3	100.0(129)
	$\chi^2 : 78.82204$		DF : 27	Sig. : .0000	



Table 4. 계 속

	모르겠다	효과가 적다	그저 그렇다	효과가 많다	계
	31.1	15.4	41.3	12.2	100.0(1206)
<b>지 역</b>					
대 도시	39.6	12.9	35.3	12.2	100.0(417)
중 도시	22.0	14.9	49.6	13.5	100.0(423)
소 도시	32.0	18.9	38.5	10.7	100.0(366)
	$\chi^2 : 38.31968$		DF : 6	Sig. : .0000	
<b>출 생 지</b>					
대 도시	28.6	16.0	40.3	15.1	100.0(357)
중소도시	32.5	10.0	42.5	15.0	100.0(240)
읍면사무소지역	27.0	18.0	47.2	7.9	100.0(267)
농어촌지역	36.0	16.7	36.8	10.5	100.0(342)
	$\chi^2 : 50.51458$		DF : 9	Sig. : .0042	
<b>종 교</b>					
없 음	32.7	21.3	36.0	10.0	100.0(450)
불 교	34.8	14.8	38.5	11.9	100.0(405)
기 독 교	28.4	10.4	46.3	14.9	100.0(201)
천 주 교	20.0	6.0	58.0	16.0	100.0(150)
	$\chi^2 : 50.71458$		DF : 9	Sig. : .0000	

중소도시가 15.0%로 다음이었으며 일반적인 긍정적인 평가는 중소도시에서 57.5%로 가장 높았고 읍·면 소재지역 55.1%, 대도시 55.4%, 농어촌 47.3%로 나타났다.

종교별로 보면 효과가 많다는 천주교신자(16.0%), 기독교신자(14.9%), 불교신자(11.9%), 무교(10.9%)의 순이었으며 효과가 적다는 인식은 그 반대로 천주교신자(8.7%)와 기독교신자(46.3%)에서 높게 나타났다.

### 5. 營養劑와 식사와의 관계에 대한 인식

營養劑 복용과 식사와의 관계에 대한 의견에서 식사를 제대로 하면 營養劑를 복용하지 않더라도 건강하다는 인식을 하고 있는 사람이 62.2%로 나타났고, 식사를 제대로 하더라도 營養劑는 복용해야 한다는 인식을 갖고 있는 사람도 18.5%나 되었으며, 식사를 제대로 하지 못할 때 영양제가 필요하다는 의견은 10.0%에 불과하였다(Table 5). 1984년 조사<sup>12)</sup>에서 나타난 식사를 제대로 하면 영양제 복용이 필요없다는 응답을 45.8%에 비해 본 조사의 응답율은 높았고, 식사를 제대로 하더라도 영양제를 먹어야 한다는 응답을 22.3%보다 본

조사에서는 약간 낮게 나타나 영양제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 점차 확산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식사를 제대로 한다는 의미는 하루 3식을 규칙적으로 하며 영양가 면에서도, 인체에 필요한 영양 즉 기초식품 5군<sup>14)</sup>을 섭취한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럼에도 영양제를 복용해야 한다는 잘못된 인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 약 20%나 된다는 것은, 약품을 오용 또는 남용하고 약품의 과소비 풍조에도 일익을 담당하여 보건 학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된다.

성별로 보면 식사를 제대로 하더라도 영양제를 복용해야 된다는 인식은, 여자가 20.8%로 남자 16.8%보다 높아 복용 경험율이 여자가 남자보다 높게 나타난 결과와 상통하였다. 한편 식사를 제대로 못했을 때 영양제는 먹어야 한다는 데는 여자가 10.4%로 남자 9.5%보다 약간 높았다.

연령별로는 營養劑를 복용해야 건강하다는 생각을 가진 연령층은 40대에서 26.8%로 가장 높았고, 30대 23.2%, 60대이상 20.0%, 50대 16.2%의 순이었다. 이는 40대에서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을 간접 시사하고 있으며 40대의 營養劑 복용 경험율이 75%인 점과 일맥 상통한다. 학력별로 보면 잘 모르겠다가 역시 무

Table 5. 營養劑와 식사와의 관련에 대한 의견

	식사를 제대로 하지 못했을 때 효과가 있다	식사만 제대로 하면 복용하지 않더라도 건강하다	식사를 제대로 하더라도 영양제를 복용해야 건강하다	잘 모르겠다	계(No.)
	10.0	62.2	18.5	9.3	100.0(1167)
<u>성 별</u>					
남	10.0	62.2	18.5	9.3	100.0( 11)
여	9.5	64.1	16.8	9.5	100.0(660)
	10.4	60.0	20.8	8.7	100.0(519)
	$\chi^2 : 3.68680$		DF : 3	Sig. : .2973	
<u>연 령</u>					
~19	16.7	55.6	0.0	27.8	100.0( 54)
20~29	11.2	64.3	14.7	9.8	100.0(429)
30~39	3.6	62.5	23.2	10.7	100.0(168)
40~49	8.2	57.7	26.8	7.2	100.0(291)
50~59	13.5	64.9	16.3	5.4	100.0(222)
60~	0.0	80.0	20.0	0.0	100.0( 15)
	$\chi^2 : 71.64897$		DF : 15	Sig. : .0000	
<u>학 력</u>					
무 학	16.7	55.6	0.0	27.8	100.0( 54)
국민학교	11.2	64.3	14.7	9.8	100.0(429)
중 학 교	3.6	62.5	23.2	10.7	100.0(168)
고등학교	8.2	57.7	26.8	7.2	100.0(291)
대 학 교	13.5	64.9	16.2	5.4	100.0(222)
대 학 원	0.0	80.0	20.0	0.0	100.0( 15)
	$\chi^2 : 71.64897$		DF : 15	Sig. : .0000	
<u>직 업 별</u>					
전문기술직	2.9	65.7	22.9	8.6	100.0(105)
농축임수산업	16.7	61.1	5.6	16.7	100.0( 54)
생 산 직	10.0	60.0	30.0	0.0	100.0( 30)
교 직 원	0.0	82.6	8.7	8.7	100.0( 69)
행정사무직	7.7	73.1	15.4	3.8	100.0( 78)
판매서비스업	11.7	51.7	28.3	8.3	100.0(180)
단순노무자	0.0	62.5	25.0	12.5	100.0( 24)
학 생	11.4	61.9	11.4	15.2	100.0(315)
무 직	11.3	59.7	25.8	3.2	100.0(186)
기 타	14.3	61.9	16.7	7.1	100.0(126)
	$\chi^2 : 71.64897$		DF : 27	Sig. : .0000	
<u>결혼상태</u>					
미 혼	9.3	64.7	12.7	13.3	100.0(450)
결 혼	10.7	61.1	21.8	6.4	100.0(702)
독 신	0.0	55.6	33.3	11.1	100.0( 27)
	$\chi^2 : 34.00996$		DF : 6	Sig. : .0000	

학에서 27.8%로 가장 높았으며, 식사를 제대로 하더라도 영양제를 복용해야 한다는 인식은 고등학교와 중학교 학력자에서 각각 26.8%와 23.2%로 나타났으며, 대학원 학력자와 대학 학력자에서도 20.0%와 16.2%를 보여 교육정도와 이에 대한 올바른 지식과는 거리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었다.

직업별로 보면 일반적인 식생활에서 營養劑를 먹어야 한다는 경우는, 생산직에서 30.0%로 가장 높고, 판매서버서비스업에서 28.3%, 무직 25.8%, 단순노무자 25.0%, 전문기술직 22.9%의 순으로 나타나 육체적으로 약간 활동적인 생산직과 판매 서버서비스업 및 단순 노무자에서 높게 나타나, 이들은 건강을 위하여 식사 이외의 영양제 복용이 필요하다고 잘못 인식하고 있었다. 식사를 제대로 하면 영양제 복용이 필요하다고 잘못 인식하고 있었다. 식사를 제대로 하면 영양제가 필요 없다는 인식은 교직원에서 80.6%로 가장 높았고, 행정사무직 73.1%, 전문기술직 65.7%의 순으로 육체적보다 정신적인 활동이 많은 직종에서 식생활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갖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

결혼상태별로 보면 결혼한 사람이 21.8%로서 미혼인 12.7%보다 식사뿐 아니라 營養劑를 먹어야 한다는 인식을 더 많이 갖고 있었고 독신의 경우는 33.3%로 가장 높았다. 기혼자는 결혼으로 인한 육체적 부담감과 독신자는 불규칙한 식사에 대한 부담감 때문에 營養劑라도 먹어야 건강이 유지된다는 막연한 생각의 작용 때문이라고 판단된다.

## 6. 약에 대한 지식습득방법

營養劑를 포함한 일반 약품에 대한 지식은 『텔레비전』이나 『라디오』 광고를 통하여 습득하는 경우가 59.5%로 가장 높았으며, 보건의로 전문가인 의사나 약사와 상담하여 습득하는 경우는 24.9%였고, 신문 책이나 잡지를 통하여는 46.3%, 친구나 친지를 통하여 5.3%로 나타났다(Table 6). 이를 보면 전파매체인 『텔레비전』이나 『라디오』 등을 통하여 의약품에 대한 정보와 지식을 얻고 있는 경우가 신문, 책, 잡지 등 인쇄매체를 통하여 얻는 습득율보다 월등히 높음을 알 수 있어, 전파매체를 통한 건강에 관한 정보나 지식 공급은 대단히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다.<sup>12)</sup> 이러한 대중매체를 통한 지식공급은 일반 대중들에게 그대로 노출되기 때문에, 그 건강정

보와 지식을 필요로 하는 대상을 분명히 하여 일반대중에게 혼란을 초래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성별로 보면 『텔레비전』, 『라디오』 등 전파매체나 신문, 잡지 등 인쇄매체를 통한 약에 대한 지식습득은, 남자에서 각각 61.0%와 10.8%로, 여자의 57.5%와 0.6%보다 높았으며, 의사나 약사를 통한 지식습득은 여자가 33.5%로 남자의 17.9%보다 월등히 높게 나타났다. 이는 보건의료인과의 접촉이 많으며 남자는 보건의료인보다 대중매체와 접촉이 많음으로 일어나는 일반적인 현상이라고 생각된다.

연령별로 보면 의사나 약사 등 전문인으로 부터 약에 대한 지식습득은 연령층이 많거나(60대 40.0%, 50대 37.8%) 연령층이 어린(10대 36.8%)층에서 타 연령층보다 높았으며, 신문, 잡지를 통하여는 10대와 20대(15.8%와 11.6%)에서 타 연령층의 1.8%~2.7%보다 월등히 높게 나타났으며, 친구나 친지를 통하는 경우는 40대~60대에서 타 연령층보다 높게 나타났다.

학력별로 보면 『TV』, 『라디오』를 통하여 지식을 얻는 경우는 모든 연령층에서 42.0~66.7%로 보였으며, 신문, 잡지 등 인쇄매체를 통하여 보건지식을 습득하는 경우는, 대학교와 고등학교 학력자가 각각 10.7%와 3.3%였으며, 중학교 학력자 이하에서는 전혀 없었다. 그리고 의사와 약사로 부터 지식을 습득하는 경우는 국민학교와 중학교 학력자가 각각 35.0%와 34.0%로, 고등학교와 대학 학력자의 32.2%와 17.3%보다 높게 나타났다. 즉 교육정도가 높아 글을 자주 접하는 층은 인쇄매체를 통하여 지식을 습득하는 경우가 많았으며 보건의로 전문가와 상담을 통하여 지식을 습득하는 경우는 학력수준이 높은층 보다 낮은층에서 높게 나타났다.

직업별로 보면 TV나 라디오를 통한 경우는 단순노무자가 50.0%로 가장 낮고 교직원 75%, 무직이 65.1%, 행정사무직 63.0%로 높은 편이었으며, 잡지와 신문을 통한 경우는 학생 14.7%와 전문기술직 8.3%, 교직원 4.2%였으며 의사나 약사와 상담하여 지식을 습득하는 경우는 단순노무자가 50.0%로 가장 높았고 농어수산업 38.9%, 판매 서버서비스업 31.7%, 무직 28.6%, 행정사무직 25.9%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현상은 어느정도 예견된 결과라고 할 수 있겠다. 경제상태별로는 TV나 라디오를 통한 경우는 상류층과 하류층에서 각각

Table 6. 약에 대한 지식 습득방법

	의사, 약사 와의 상담	TV라디오 광고	신문, 책, 잡지	친구와 친지	기타	계 (No.)
	24.9	59.5	6.3	5.3	4.0	100.0(1194)
<b>성 별</b>						
남	17.9	61.0	10.8	6.3	4.0	100.0(669)
여	33.5	57.5	0.6	4.5	3.9	100.0(531)
		$\chi^2 : 81.33517$	DF : 4	Sig. : .0000		
<b>연 령</b>						
~19	36.8	42.1	15.8	5.3	0.0	100.0( 57)
20~29	10.2	66.7	11.6	2.7	8.8	100.0(441)
30~39	35.1	57.9	1.8	3.5	1.8	100.0(171)
40~49	28.0	59.0	2.0	9.0	2.0	100.0(300)
50~59	37.8	52.7	2.7	6.8	0.0	100.0(222)
60~	40.0	40.0	0.0	20.0	0.2	100.0( 15)
		$\chi^2 : 187.29459$	DF : 20	Sig. : .0000		
<b>경제상태</b>						
상	40.0	20.0	0.0	20.0	20.0	100.0( 57)
중상	24.5	62.3	5.7	1.9	1.9	100.0(159)
중	23.4	61.3	5.6	4.3	4.3	100.0(744)
중하	18.6	62.9	4.3	5.7	5.7	100.0(210)
하	53.8	34.6	3.8	0.0	0.0	100.0( 78)
		$\chi^2 : 71.20487$	DF : 16	Sig. : .0000		
<b>학 력</b>						
무 학	0.0	100.0	0.0	0.0	0.0	100.0( 3)
국민학교	35.0	60.0	0.0	5.0	0.0	100.0( 60)
중 학교	34.0	59.6	0.0	4.3	2.1	100.0(141)
고등학교	32.2	57.0	3.3	5.8	1.7	100.0(363)
대 학교	17.3	60.2	10.7	5.6	6.1	100.0(588)
대 학 위	23.5	64.7	0.0	5.9	5.9	100.0( 51)
		$\chi^2 : 87.29563$	DF : 20	Sig. : .0000		
<b>직 업 별</b>						
전문기술직	19.4	61.1	8.3	5.6	5.6	100.0(108)
농축임수산업	38.9	55.6	0.0	5.6	0.0	100.0( 54)
생 산 직	20.0	60.0	0.0	10.0	10.0	100.0( 30)
교 직 원	16.7	75.0	4.2	4.2	0.0	100.0( 72)
행정사무직	25.9	63.0	0.0	7.4	3.7	100.0( 81)
판매서비스업	31.7	53.3	5.0	10.0	0.0	100.0(180)
단순노무자	50.0	50.0	0.0	0.0	0.0	100.0( 24)
학 생	14.7	56.9	14.7	4.6	9.2	100.0(327)
무 직	28.6	65.1	0.0	4.8	1.6	100.0(189)
기 타	34.9	58.1	4.7	0.0	2.3	100.0(129)
		$\chi^2 : 166.16047$	DF : 36	Sig. : .0000		

20.0%과 34.6%로서 다른 층의 61.3~62.9% 보다 월등히 낮고 신문, 잡지를 통하여 지식을 얻는 경우는 중상층에서 하류층보다 높았으며, 의사나 약사와 상담은 상류층(40.0%)과 하류층(53.8%)에서 다른 층보다 높았다.

### 7. 약품 구매방법

營養劑를 포함한 의약품의 구매 방법은 약사와 상의하여 구입하는 경우가 43.2%로 가장 높았으며, 자기 자신이 판단하여 약품명을 지명하여 구매하는 경우도 40.9%나 되었고, 약사가 권해서 즉 약사의 의견에 따른 경우는 15.9%에 지나지 않았다. 이는 약의 전문인인 약사의 의견이 약품구매에 반영되는 경우는 59.1%로 아직은 약사에 의존하는 비율이 높지만, 자의로 구매하는 경우가 약 41%나 된다는 것은 의약품의 오·남용과 과소비의 우려가 있어 이에 대한 계속적이고 효율적인 대국민 홍보 교육이 필요하다고 보겠다.

성별로 보면 남자가 자의로 약품을 구입하는 경우가 48.4%로 여자의 31.6%보다 월등히 높았으며, 약사의 의견이 참조된 경우 여자가 남자보다 높았다.

### 8. 營養劑 복용 및 효과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 1) 營養劑 복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營養劑 복용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무엇인가를 알아보기 위하여 성별, 연령, 교육정도, 출생지역, 종교, 직업, 결혼상태 등을 변수로 하여 多重回歸分析한 결과는 Table 7-1과 같다.

營養劑 복용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Beta = .1559로 성별이었고 학력이 Beta = .1426으로 다음이

Table 7-1. Variance Explained by Variables in Stepwise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on Nutrient Vitamine Administration

Variable	SEB	F	Beta	R <sup>2</sup>
Sex	0.2558	13.895**	.1559	.0814
Education	0.1360	18.187**	.1426	.0862
Age	0.1142	6.426	.1245	.0912
Constant	16.133			.0993
R <sup>2</sup>	0.0993			

DF : 2      \*\*P<0.01

였으며, 연령이 Beta = .1245로 3번째로 영향을 미쳤다. 이들의 설명력은 9%였으며 이들 변수는 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성이 있었다(P<0.01). 출생지역, 종교, 직업 등 다른 변수는 영양제 복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나타났다.

#### 2) 營養劑 복용 효과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營養劑 복용 효과 인식에 어떤 변수가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가를 알아보기 위하여 관련가능 변수로 연령, 성별, 교육정도, 직업, 출생지역, 결혼상태, 종교 등을 선정하여 多重回歸分析을 하여(Table 7-2)를 얻었다. 복용 효과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Beta = .1809 종교가 가장 크게 작용하였으며, 성별이 Beta = .0818, 출생지역이 Beta = .0676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1% 수준에서 유의성을 나타내었으며 설명력은 10.4%였다.

직업 교육정도, 연령, 결혼상태 등은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7-2. Variance Explained by Variables in Stepwise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on Attitude of Nutrient Vitamine Administration

Variable	SEB	F	Beta	R <sup>2</sup>
Rel	.01386	40.726**	.1809	.0867
Sex	.02850	24.656**	.0818	.0924
Birth	.1190	18.396**	.0676	.1039
Constant	25.659			
R <sup>2</sup>	.1039			

DF : 3      \*\*P<0.01

## IV. 요약 및 결론

### 1. 요약

도시지역 주민들의 營養劑 복용 실태와 이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가 무엇인가를 파악하여, 營養劑의 오남용을 예방하고 올바른 營養劑 복용의식을 갖도록 하기 위한 대책 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 제공에 목적을 두고 1990년 1월 4일 부터 24일 까지 약 20일간 서울, 대구, 포항의 주민 1206명을 대상으로 훈련된 조사원이 직접 면접조사하여 얻은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조사대상자는 20~29세군이 41.3%로 가장 많았고,

40~49세군이 24.9%, 50~59세군이 18.4%로 젊은 층이 많았으며, 학력정도는 대학학력자가 48.8%, 고등학교 학력자 30.1%로 학력수준이 높은 편이었다.

2. 조사대상자의 출신 지역은 대도시 출신이 29.6%, 농어촌 지역이 28.4%였으며, 직업별로는 학생이 27.4%, 판매서어비스업 15.1%, 전문기술직 9.0%였다.

경제상태별로는 중류층이 61.7%, 하류층이 23.9%였다.

3. 영양제를 2주이상 계속 복용한 경험이 있는 도시 주민은 72%였고, 남자의 영양제 복용 경험률은 74.6%로 여자의 68.5% 보다 높았다. 연령별로는 60대에서는 100.0% 복용경험률은 보였고, 50대 76.4%, 40대 75.0%로 일반적으로 연령이 높을수록 경험률이 높았는데 10대의 복용경험률이 63.2%, 20대 73.9%로 30대보다 높게 나타났다.

4. 영양제 종류별 복용률에서 비타민은 10대에서 57.9%로 가장 높았으며, 강장강정제복용 경험률은 60대는 100.0%였고, 10대에서도 5.3%나 되었다. 한약환제로 된 영양제 복용률은 60대 75.0%, 50대 27.8%였고 로얄제리복용 경험률은 50대 6.9%, 40대 6.8%였다.

경제상태별 영양제 복용경험률은 증상류 및 상류층이 양자 공히 약 80.0%였으며, 중하 및 하류층도 61%와 76%를 나타내어 높은 편이었다. 상류층은 비타민보다 강장강정제나 한약을 즐겨 복용하였고, 증상 및 중하류층에도 비타민 복용률이 높았다.

5. 영양제 복용결과 그 효과에 대하여는 “효과가 있다”고 응답한 사람은 60.2%로 “효과가 적다”의 22.5% 보다 월등히 많았다. 남자가 여자보다 효과가 더 많다고 하였으나 학력별로는 대학원 학력에서 효과인정률이 가장 높았고, 생산직 종사자에서 그리고 소도시 주민들에서 효과 인정률이 높았다. 천주교신자(18.5%)와 기독교 신자(15.2%)에서 효과가 크다고 한율이 타종교 신자보다 높았다.

#### 6. 영양제 효과에 대한 일반적인 인식

영양제 효과에 대하여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긍정적인 인식을 하고 있는 주민은 53.5%였고, 효과가 적은 것이라고 부정적인 인식은 생산직(70.0%)과 행정사무직(66.7%), 교직원(66.7%)에서 높았다. 천주교와 기독교 신자에서 긍정적인 인식이 불교신자와 종교를 갖지 않는 사람보다 더 높았다.

7. 영양제를 복용하지 않더라도 식사를 제대로 하면 건강하다는 인식을 가진 사람은 62.2%였고, 식사를 제대로 하더라도 영양제를 복용해야 건강하다는 사람도 18.5%였으며, 식사를 제대로 못할 때 영양제를 복용해야 한다는 사람은 10.0%였다.

영양제를 복용해야 건강하다는 생각을 가진 사람은 남자보다 여자에서, 연령이 30, 50, 60대 보다 40대에서, 미혼보다 기혼자에서 높았으며, 생산직과 판매서어비스업 종사자에서 각각 30.0%와 28.3%로 타직종보다 높았다.

8. 의약품에 대한 지식습득은 ‘텔레비전’이나 ‘라디오’를 통하여 59.5%였으며, 보건의료 전문인인 의사나 약사를 통하여는 24.9%, 신문이나 잡지를 통하여는 46.3%였다. 전파매체나 인쇄매체를 통한 지식습득은 남자가 여자보다, 연령이 젊은층이 많은 층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의사나 약사를 통한 지식습득은 여자가 남자보다 연령이 많은 층이 젊은층보다 학력이 낮은층이 높은층보다 높게 나타났다. 직업별에서는 전파매체를 통한 경우는 교직원(75.0%), 무직(63.1%), 행정사무직(63.0%)이 높은 편이며 인쇄매체를 통한 경우는 학생, 전문기술직이 타직종보다 높았다.

의사와 약사를 통한 경우는 단순노무자(50.5%), 농어수산업(36.9%), 판매서어비스업(31.7%)에서 타업종 종사자보다 높았으며 경제상태별로 보면 하류층에서 중류층보다 월등히 낮았으며 신문잡지를 통한 경우는 증상류층이 하류층보다 높았다.

9. 의약품 구입은 “약사의 상의하여”가 43.0%였고, “자기자신이 지명하여”가 40.9%였으며 “약사가 권하여”가 15.9%였다.

10. 영양제 복용에는 성별  $Beta = .1559$ , 학력  $Beta = .1426$ , 연령  $Beta = .1426$ 의 변수 순으로 많은 영향을 미쳤으며 교육정도, 직업, 경제상태 등을 적은 영향을 미쳤다.

11. 영양제 복용효과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종교  $Beta = .0676$ , 성별  $Beta = .0818$ , 출생지역  $Beta = .0676$ 으로 많은 영향을 미쳤으며 다른 변수들은 약간 영향을 미쳤다. 이들은 1% 수준에서 통계학적으로 유의성을 나타내었고 설명력은 10.4%였다.

## 2. 결 론

이상에서 본다면 일반적으로 營養劑에 대한 선호의식이 점점 커가고 있고 營養劑의 효과도 인정되고 있다.

복용은 40대 이후의 연령층에서 많아지고 있으나, 젊은층에서도 복용율이 높아지고 있으며, 한편 무조건 먹어야 된다는 잘못된 인식도 상당히 있어서, 의약품의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이에 대한 올바른 홍보교육이 필요하다. 또한 영양제에 관한 국민건강의 보호와 증진차원에서 식생활 개선에 대해 관계당국과 의사, 약사 등 보건의료인 그리고 보건교육 전문가 등이 관심을 가지고 연구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의약품과 건강식품의 매스컴을 통한 선전활동을 조정하고 규제할 수 있는 전문가들로 구성하는 약품식품안전대책위원회의 설치가 요망된다.

## 참 고 문 헌

1. WHO, primary Health Care.
2. Anthony R. Kovner, Samuel P. Martin ; Community Health and Medical Care, Grunce, & Stratton, Inc., pp. 4~6, 1978.
3. 南喆鉉外 ; 人口保健指標 및 統計, pp. 9~11, 1984.
4. 經濟企劃院 ; 經濟白書, 經濟企劃院總計局, pp. 290~291, 1988.
5. Health and Welfare Statistics in Japan, 昭和 63, 厚生統計協會.
6. 洪淵璋 ; 藥의 올바른 使用, 藥苑, Vol. 2, No. 1, 醫界新聞社, pp. 42~44, 1990.
7. 文國鎮, 藥書 ; 潮閣, pp. 2~7, 1983.
8. 醫界新聞社 ; 藥苑, Vol. 2, No. 3, pp. 15~17, 1990.
9. 朱王基, 김형준 ; 藥物濫用과 藥師의 役割, 大韓藥師會誌 Vol. 1, No. 1, pp. 142~144, 1990.
10. 南喆鉉, 유태종, 홍문화 ; 바른건강 生活, 保健社會部, pp. 20~22, 1983.
11. Norman H. Nic, C. Hadlai Hull, etal ; Statistical package for the Social Sciences 2nd. edi., 1975.
12. 南喆鉉 ; 韓國婦人의 保健知識 態度 및 實踐 調查研究, 保健教育學會, Vol. 3, No. 1, 1985.
13. 姜福秀外 ; 豫防醫學과 公衆保健, 癸丑文化社, pp. 503~509, 1988.
14. 韓國人口保健研究院 ; 韓國人營養勸獎「高文社」1989.
15. 保健社會部 ; 保健社會, 保健社會部, p. 415, 1988.
16. 張俊植 ; 藥局 GPP導入의 必要性和 對策, 大韓藥師會誌, 藥師會論, pp. 90~102, 1990.
17. 韓國人口保健研究院 ; 2,000년을 향한 國家長期發展構想, 韓國人口保健研究院, pp. 365~369, 1985.
18. 具然哲 ; 農村住民의 保健意識, 大韓保健協會誌, Vol. 4, No. 1, 1978.
19. 南喆鉉外 ; 韓國保健意識行態調查研究 韓國人口保健研究院, pp. 138~147, 1984.

<Abstract>

## **A Study on the Nutrition Intake Realities to an Affect Influence Factors for Dweller in City Area**

**Jong-Saeng Choi, Chung-Hwan Byun, Chul-Hyun Nam**

Graduate School of public Health Kyung San University

In the research and analysis for survey practice on stability on the nutrition intake realities to an affect influence factor for variable reason to discovers dweller in cities area which is in order to prevent an unfortunately influence that thus obviously restricted by nutrition intake would be restoration. And then attempted to avhivement of stability fulfil to correct nutrition intake needed under the establish for effectiveness measured to provide the primary required resources be considerations must accomplish certain survey of goals.

Therefore subject of criticism for survey was conducted during January 4 1990 to January 24 1990 through 20 days adapted place were Seoul, Taegu and Pohang cities dweller 1206 person be conducted under the expert survey personnel by directly the survey was conducted with the questionnal form has ataped for its survey conclusion of result be summarixed as bellow.

1) The subject of criticism for survey was ferformed to personnel adapted age group 40 to 49 were 24.9%, Age group 50 to 59 were 18.4% shows most adult group has significant higher value rate appearenced.

In consideration the education level were evaluated the college grauated ; 48.8% and High School graduated ; 30.1% shows that more educated level has significant higher rate value were appearenced.

2) On the subject of criticism to evaluation for adapted personnel by native place such as larger citypeople ; 29.6%, Farming and fishing village people were 28.4%, although the classification of job analysis for estimation appearence rate were ; students 27.4%, Sales and service field personnel rate ; 15.1% and expert technique field personnel were ; 90% comprehensively appearenced. Although consideration for economics situation review to the middle level shows of rate ; 61.7% and lower level was appearenced rate ; 23.9% of each others.

3) The people of resident in cities were appearenced nutrition intake has more than 2 weeks continuously practiced by experiance rate shows ; 72% thus intake has experianced rate were 74.6% and female was 68.5% affact is comprehensively male has more many higher rate valued.

In the classification by age group 60 years old has 100% they have experiaced of nutrition intake and age group 50 to be appearenced its rate ; 76.4% and age group 40 were 75.5% Thus result of survey for comparative rate shows in generally say more aged group has intake significant higher than younger age of group. Nevertheless, age group 10 years old be experianced of nutrition of intake rate ; 63.2% and age group 20 shows 73.9% was comparative more significant higher than age group 30 years old level adolescents.

4) In the classification by evaluation on caloric intake rate of realities shows vitamin was age group 10 years old has shows ; 57.9% is most significant higher and bowels intestines well nutrished experianced of intake were age group 60 years old has shows 100.0% also age group 10 years old were 5.3%. And although people has intaked experiance of oriental medicine rate were age group 60 shows 75.0%, age group 50 were 27.8%, and they had experiance for intaked of royal jery were age group 50 shows ; 6.9%, age group 40 years old were 6.8% comprehensively appearenced.



In the evaluation by economics situation with nutrition intake experianced by middle higher level and among these highest level bothoof them comprehensively appearenced rate : 80.0% middle level and low level were 61% and 76% each other omparative higher.

In the comprehensively by the higher level were nurition intakes spirtual medicine and bowels intesines than vitamine. And middle higher level were also intake vitamine rate shows significantly higher fach appearenced.

5) An effective of obviously essential major restoration result be answered has been positive person rate ; 60.2% but refect less of effective were 22.5% thus result conclusionly more many rate shows the positive answer. There by, male has more with positive than female actual conditions. By classification with education level thus be found that most significant higher to fomform with the graduate school level also comprehensively product job field and resident in small dawn village people was positively higher value rate.

Nevertheless christianity and roman catholicism were significant higher rate than other religian people has intake of vitamine rate 18.5% and 15.2% of each others.

6) In generally recognition effectiveness an evaluation by nutrition intaked fact ; In consideration of the effective an evaluation by nutrition intaked fact be answered by positive fact person dweller rate ; 53.5%, other hand negative answered for its effective has less than expected value. Also these productive job personnel were(70.0%) administrative job field(66.7%) School teacher were(66.7%) is sighifant higher value, Roman catholicism and christianity has more significant higher than buddist and other nonrealign personnel rate facts.

7) In generally recognition for people would be aviliable to keep on health without nutrition intake espeaily its rate is 62.2% and other some people recognized even taken food but timely needed nutrition intake is necessaried in order to improvement of better health measured were 18.5% and some other people were recognized require to nurition intake if it incase food not be properly taken by circumstance matter's were 10.0% be appearenced. Although, estimated that the nutrition intake affect be health recognized rate were male has more significant higher than female recognition of rate. Thus age group 30, 50, 60 years old were depressive condition than age group 40 years old married people was comparlatively higher than unmarried people of rate. And also productive job and serviced people of rate both of significantly higher than other job position recognition of it, both of rate of rate shows 30.0% and 28.3% appearenced each other.

8) To obtain of medical pharmacy knowledge were most of by T. V and Radio sound effective influencend rate ; 59.5%, and obtain by medical health member or pharmacy employees recommand rate ; 24.9% and by news peaper or magazine gives effective were 46.3% Rate appearenced each other. Although there though out obtain by eletric maching system or publishing form to recognition value rate were male has more higher than female comprehensive rate. Through consideration of compear with age group valuation appearence that the comparative Younger has mors significant higher than old age of group personnel, thereby medical doctor or member of pharmacy to recommand that the knowledge of obtain value of rate for female has more many than male rate of value. To provide the more aged personnel group was higher effect its rate than Younger aged and evaluation an education field for its affect that low educated personnel level would be get more than higher level of educated personnel. The classification on job title be evaluated they have incase school teacher teacher utulization of electric system be adopted fact rate were(75.0%), unemployeed(63.1%) administrative job(63.0%) for significant higher rate. Navertheless, by publishing form were students or expert techniquan were more higher value than compear with other job of functional position to work. If it incase adviced by medical doctor of pharmacy member gives to recommand for labor were(50.5%) Sales or service job personnel(31.7%) thus were significant higher than a there field job position to works. In the evaluation an economicly review low level has more depressive than

middle level of economic consideration be appeared. Although consideration of review in the evaluation by news paper of magazine publishing effectiveness were middle level is lower than low level of condition of economic situation comprehensive rate.

9) As for the purchasing of medicine, 43.0% purchased their medicine after having consulted with pharmacists, 40.9% bought by their own judgements and 15.9% bought recommended by pharmacists. Purchases of medicine made by their own judgements tended to occur more among men than women, more among the younger aged (in their 10's, 20's, 30's, and 40's) than the older aged (in their 50's, and 60's), more among the upper classes than the lower classes, more among the less educated than the more educated and more among those living in smaller cities. Those who sought advice from doctors and pharmacists in purchasing their medicine happened to be more among women than men, more among resident of larger cities than those of smaller cities and more among those belonging to the upper and lower classes than those belonging to the middle classes.

10) The use of dietary supplements was more affected by their sex (Beta=.1559) education (Beta=.1426) and age (Beta=.1426), and their educational level, occupations and economical aspects played a relatively little role.

11) The parameters which were influential with their perception of the effectiveness of dietary supplements were religion (Beta=.0676), sex (Beta=.0818) and place of birth (Beta=.0676) and, other parameters affected little, they only had statistical meaning with 1% each and had no explanatory values.